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 열려 간호사 지속근무 가능한 업무환경 등 논의



2017 아시아간호연맹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2017년 국제간호협회(ICN)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WWF) 및 아시아간호연맹(AANA) 회의가 타이완간호협회 주관으로 타이페이에서 열렸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마카오, 필리핀 등 10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대표로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과 김남초 제2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은 11월 14~15일 열렸다. ICN이 후원했으며, 신성례 ICN 제3부회장 과 하워드 카튼 ICN 간호·보건

정책 디렉터가 참석했다. 포럼은 간호사들의 사회·경제·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년 열린다. 올해 포럼에서는 각국의 간호사 수급 문제, 높은 이직률, 간호사 급여 불균형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기후변화와 헬스케어, 전환점 그린 병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간호사 확보 및 지속근무 유지 전략,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보장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 정부 및 정책결정자와의 관

계 구축 전략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간호사 확보 및 지속근무 유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 이어 아시아간호연맹(Alliance of Asia Nurses Association) 회의가 11월 16일 열렸다. 연맹은 세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시아 간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다. 올해 회의에서는 간호교육 및 보수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내년 2018년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는 홍콩에서 열린다. 2019년 포럼 및 회의는 한국이 개최한다. 한편 이번 회의기간 중에 '한·중·일 리더스 미팅'이 열렸다. 3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모여,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 대회를 2018년 9월경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보수교육 프로그램 |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협, 간호대학생 위한 공개강연 개최

간호대학생들이 예비간호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가 '2017 간호대학생 공개강연'을 11월 25일 개최했다. 이번 공개강연은 대한간호협

회가 운영하는 회원복지물 넬스라이프에서 주최했다. 간호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남부대 협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해 공개강연은 부산시에서 열린 바 있다. '한국 간호의 역사' 주제로 이덕

주 감리교신학대 교수가, '병원이 원하는 간호사' 주제로 이명혜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장, '한국 간호의 미래' 주제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전 국회의원)가 특강을 했다. 강연에 앞서 소록도에서 40여년간 헌신한 오스트리아인 두 간호사의 삶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감상했다. 박인혜 광주시간호사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호대학생들은 포토존에서 대한간호협회 캐릭터 '사랑이' '믿음이'와 함께 인증샷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경품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문화상품권, 영화티켓 등 푸짐한 상품이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위' 발족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 간협, 위원으로 참여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40여년간 봉사하고 인류에 실추한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발족식이 11월 23일 개최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TF팀을 꾸려 준비했다. 노벨평화상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자 발족했다. 마리안느 스티거(83세)와 마가렛 피사락(82세)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1962년, 1966년에 전남 고흥 소록도에 파견됐다. 두 간호사는 무보수로 40여년간 한센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주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통의 편지만을 남긴 채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추천위원회는 정관계, 보건의료계, 학계, 법조계, 재계 등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형식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간협에서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과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범국민 100만명 서명운동과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범국민 추천 분위기 확산과 국내외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김형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신 두 분의 사람에게 빛을 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노벨평화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김연준 사단법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사장(소록도성당 신부)이 보고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마리안느와 마가렛 홍보영상물을 함께 시청했다. 이어 추천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100만명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에 간협협회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처한 포항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오는 12월 5일(화)까지 전개합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포항시에 지원 기부되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을 위하여 쓰이게 됩니다. 간호사는 5,000원 이상, 간호대학생은 3,000원 이상을 오는 12월 5일(화)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모금계좌 KEB하나은행 153-910011-75204(예금주 대한간호협회)

내년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환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의원급에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약국에서 1만원 이하이면 1200원, 한의원(투약처방)에서 2만원 이하이면 21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이번 건강심에서 복지부는 단기적 방안으로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

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전체가 1만 5000원을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30%에서 10%, 20%, 30%로 차등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관리가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의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oo@

김수지 명예교수 1주기 추모행사 사랑과 돌봄의 의미 함께 나눠

김수지 이화여대 명예교수 1주기 추모행사가 11월 25일 이화여대 대학교회관에서 열렸다. 정신간호사회와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를 비롯해 1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이화여대 정신간호학교실이 주관했다. 추모행사에는 김 수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를 비롯한 유족, 동문, 제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추모예배를 흥정길 목사(남서울 은혜교회 원로)가 집례했으며, 김수지 명예교수 추모영상에 상영됐다. 이광자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김수지 교수님의 사랑과 돌봄의 의미' 주제로 추모강연을 했다. 친구와 동역자 등이 고인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눴다. 김수지 명예교수가 자사·작곡한 '사랑의 돌봄'이 연주됐다. 고인은 간호교육자이며 이론가



로 간호교육-연구-실무를 통합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민성정 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지역정신보건사업 모델 구축, 호스피스 확산 등에 힘썼다. 특히 '사람 돌봄(Interpersonal Caring)'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지역사회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으며, 이 공로로 국제간호협회가 주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했다.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초대 학장으로 봉사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증' '한국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한국간호과학회장,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장, 한국호스피스협회장 등을 지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은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